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금일(今日)은 신축년(辛丑年) 하안거(夏安居) 결제일(結制日)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대중(大衆)들이 모여서 안거(安居)를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혜명(慧命)을 잇고 광도중생(廣度衆生)하기 위함이라.

이 대도(大道)의 진리(眞理)는 한 번의 발심(發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해보는 것으로는 불가능함이라.

태산(泰山)을 넘는 기상(氣像)의 신심(信心)과 바다를 건너는 불퇴전(不退轉)의 일일발심(日日發心)이 있어야 함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번 해야 할 것이라.

금일 결제대중은 이 여름한철동안 모든 반연(攀緣)은 끊고 시비(是非)는 내려놓고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옆도 보지 말고 오직 화두타파에 목표를 두고 선지식(善知識)으로 인가(認可)받을 때까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혼신(渾身)의 힘으로 정진(精進)에 정진(精進)을 거듭해야 함이로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조주고불(趙州古佛)이라는 조주(趙州)선사(禪師)께서 행각차(行脚次) 임제사(臨濟寺)를 방문하여 발을 씻고 있는 차에, 종문(宗門)의 위대한 선지식(善知識)인 임제(臨濟)선사께서 다가와 물으시기를, "어떤 것이 조사(祖師)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하시니, 조주 선사께서 "마침 노승(老僧)이 발을 씻는 중이니라."하고 대답하셨다.

이에 임제 선사께서 가만히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늉을 하니, 조주 선사께서 "알면 바로 알 것이지, 되씹어 무엇 하려는고?" 하심에 임제 선사께서 팔을 흔들며 가버리시니, 조주 선사께서 "30년간 행각(行脚)하다가 금일(今日)에야 처음으로 주각(注脚)을 잘못 내렸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석일(昔日)에 임제(臨濟)선사께서 발우(鉢盂)를 들고 탁발(托鉢)을 하시는데, 어느 집 앞에 가서 대문을 똑똑 두드리니, 한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와 임제 선사를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다. "이 염치없는 스님이로구나!"

그러자 임제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푼의 시주도 하지 않고서 어째서 염치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 노파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왈칵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기에서 임제 선사께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절로 돌아가셨다.

대중(大衆)은 알겠는가?

만약 임제 선사께서 노파(老婆)가 문을 닫을 적에 한 마디 이르셨다면 문전박대(門前薄待)를 면했을 것이다.

그러면 임제 선사는 번갯불보다도 빠르고 돌불보다도 빠른 기봉(機鋒)을 갖춘 위대한 도인(道人)이신데, 노파가 대문(大門)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에는 왜 한 마디도 못 하고 걸음을 돌리셨느냐?

이 '임제탁발화(臨濟鉢盂話)' 법문은 '덕산탁발화(德山鉢盂話)' 법문과 더불어 가장 고준(高峻)한 공안(公案)입니다.

다른 공안(公案)에 대해서는 역대(歷代) 선지식(善知識)들의 송(頌)과 평창(評唱)이 있었지만 이 공안에 대해서는 천 이백년 동안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입을 댄 이가 없었다.

산승(山僧)의 스승이신 향곡(香谷)선사께서 당시에 제방(諸方)의 조실(祖室)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이 '임제탁발화' 법문을 가지고 물었지만 흡족한 답을 내놓으신 분이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해운정사로 오셨을 때 산승이 도량(道場)을 포행(布行)하고 있었다. 도량에 들어서자마자, 선 채로 대뜸 '임제탁발화' 법문을 물으셨다.

"네가 만약 임제선사가 되었던들 무엇이라 한마디 할려는고?" 하시기에, 산승이 즉시 "삼십년래농마기(三十年來弄馬騎)러니 금일각피려자박(今日却被驢子搏)입니다.(삼십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왔더니 금일 당나귀에게 크게 받힘을 입었습니다.)"라고 답을 하자, 향곡선사께서 크게 웃으시면서 산승의 손을 잡고 "과연 나의 제자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가 향곡선사 열반(涅槃) 나흘 전의 일이다. 향곡선사께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멋진 삶을 사시다가 가신 것이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조주 선사를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지닌 본성을 아는가

태고종 종정 지허 대종사



오늘 여기 모신 대중은 물론 일체 중생이 모두 다함없는 무진억겁에 영구불변한 대적광명지(大寂光明智)를 갖추었는데 스스로 지닌 이 본성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몸이 바로 대적광명지의 깃발이요, 이 마음이 신통을 담은 궁궐인 즉, 작은 촛불 하나에 팔만 사천 지옥을 태우고 용의 입속에 여의주 빼내어 가지고 놀 줄을 왜 모르는가.

본분납자(本分衲子)에게 결제나 해제가 분별이 있을 리 없지만 하안거 결제라 하니 회상(回上)에 있거나 선원에 있거나 어디서든 자기 분상에서 본분화두가 순일(純一)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정진일로를 갈 뿐이다.

태고 조사께서는 13세에 일찍 출가하시어 강원을 나와 선원에서 참구하였으나 때때로 경전을 탐색하였고 심오한 데에 이르러서 이 또한 토끼 잡는 그물이고 고기 잡는 통발이라 판단하고 대장부의 목표는 아니라 하였다. 그리고 대장부로서 큰 원을 세우고 관음기도를 한 후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의 화두에 전념하였다.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게으른 마음이 생기고 기질이 약하여 큰 일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진고행하다 죽은 후 몸을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용맹정진 후 4년 만에 확철대오하여 8구의 오도송을 다음과 같이 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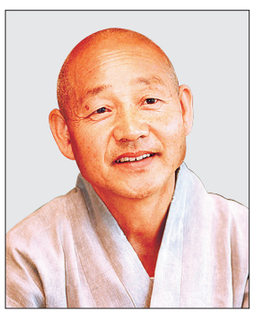
一亦不得處 일역부득처
踏破家中石 답파가중석
回看沒破跡 회간몰파적
看者亦己寂 간자역기적
나무아미타불

了了圓陀陀 요요원타타
玄玄光爍爍 현현광삭삭
佛祖與山河 불조여산하
無口悉呑卻 무구실탄각
나무아미타불

하나도 얻을 곳 아닌데
집안 돌 밟아 깨버렸네
돌아보니 깨진 자욱마저 없고
돌아본 것까지 더욱 고요하구나
모두 허물어져서 두루 명백하고
깊고 깊은 이치 그 빛이 찬란하니
부처와 조사와 더불어 산과 강을
입없이 모두 삼켜버렸네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獼猴探水月하야
到死不休歇이라
放手投深池하면
十方光皎潔이로다

원숭이는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다.
손을 놓고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면
밝은 광명 시방에 가득하리라.

금일 결제 대중이여!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고 조사의 공안을 참구하되 내일을 기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자에게는 다만 오늘이 있을 뿐 내일은 없으니, 내일을 기다리는 수행자는 미륵이 성불한다 해도 대사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조사는 천하인을 제도한다, 살린다 하지 않고 죽인다고 했는데 이는 大死 이후라야 大生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육조 스님은 남악회양 스님에게 "네 밑에 말 새끼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인을 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 새끼가 바로 마조도일입니다.

천하인을 밟아 죽일 수 있는 힘을 얻는 처방이 바로 화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두도 헤아리면 死句가 되고, 별 것 아닌 화두도 헤아리지 않고 지극한 신심으로 바른 의심을 간절하게 가지면 活句가 되어서 모두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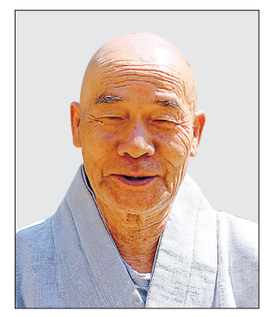
一切處 一切時에 잠시도 화두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은산철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대신심 · 대의심 · 대분심을 가지고 정진하면 본분사를 그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無邊風月眼中眼이요
不盡乾坤燈外燈이라
柳暗花明千萬戶에
鼓門處處有人應이라

가없는 청풍명월은 안목 중의 안목이요
다함없는 하늘 땅은 등불 밖의 등불이로다
버들 우거지고 꽃 화사한 천만 한양에
뉘 집 문을 두드린들 대답하지 않으리.

일념바탕에 행복이 샘솟는구나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일도양단 다 놓고 제자리에 돌아와 결제 입방을 하니 통쾌하도다! 거친 숨길을 곱게 조복 받아야지, 대중을 부처님같이 제대로 시봉해야지, 꿈에도 공부가 一色이 되게해야지. 무슨 복으로 이 결제에 주인공이 되었을까? 시방세계가 녹아져 경계가 맑게 비었도다. 곱고 미운 것이 맑은 거울을 속일 수 없고 누르고 푸른 것이 밝은 구슬을 더럽힐 수 없네. 화장찰해도 밝은 달을 가두지 못하고 밤사이 흐르는 그림자 산호 가지에 걸렸도다." -만공스님

고목 끝 가지에 밝은 달이여 고요한 도량에 대종소리가 지축을 흔든다. 보고 듣는 이 물건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아 ! 만고의 중심 이 물건이여, 이 뭘까? 하늘 땅 폭발하기 전, 이 불가사의 생명바다, 이 뭘까? 無도 아니요, 空도 아니요, 제로도 아니요, 0도 아니요 시작점, 출발점 이 자체, 이 뭘까?

돌이키니 백천 숨길이 터진다. 소리 앞에 모양 앞에 구원겁 전에 이미 무르익어 있었나?

個個가 서로서로 완성이다. 여유만만이요 백억달마로다. 卽下에 돌이켜라! 이- 하는 이 놈을 돌이켜라! 보고 듣는 이 물건을 반조하라!

이 지심에 폭 빠져라. 지심귀명례를 백천만번 반복하는 조석예불을 놓치지 마라. 지심에서 열린 산하대지가 불국토요, 지심에서 열린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가 부처님이요, 달마로다.

삼계대사 사생자부를 어디 딴 곳에서 찾을 것인가? 대종소리 목탁소리 아닌 것이 어딨나? 요동치는 세상소음이 대종소리요, 조도의 벗이요, 구경열반이로다.

外息諸緣 內心無喘. 딴 짓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애 쓰다보면 푹 빠진다. 다 놓아지고 다 잊어지고 몰란결에 고요해지고 성성해진다. 고요가 성성해지고 성성이 고요해지고 성적등지로 한 몸이 되면 잠을 자도 공부요 가닥이 잡혀 쉬어진다. 백천삼매 묘한 뜻이 일념바탕을 여의지 않았으니 이런 행복이 어디있나. 어느 사이 얼굴이 쉬어져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 사문이 쉬어보이면 세상이 진정되고 역병이 소멸된다.

폭포는 절벽에 날고 찬 안개 나무 숲에 일고 있네. 철썩같이 굳은 결심 꽃잎같이 고운 얼굴 저 고운 얼굴에 철썩같이 굳은 결심이 숨어있네. 이-뭘까?

달마가 벽을 향해 돌아앉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는 소림굴에서 2조 혜가대사에게 법을 전합니다.

소실봉은 숭산의 서쪽봉우리를 말합니다. 하남성 등봉현(登封縣)에 있는 숭산(崇山)은 중국의 오악(五嶽) 가운데 중앙(中央)으로 불리는 성산(聖山) 중에 성산입니다. 이 산에 달마대사가 머물렀던 인연으로 그의 선풍을 소실가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이 높아 명산이 아니라 인물이 있기 때문에 명산입니다.

이락伊落에 있던 慧可가 도를 깨닫기 위해 소림굴 밖에 이르렀습니다.

혜가는 불교. 유교. 도교의 깊은 이치에 밝았습니다. 달마는 면벽단좌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혜가는 "옛사람은 도를 구하기 위하여 뼈를 부수고 골수를 내며 피를 뽑아 굶주림에 먹이고 머리를 풀어 진흙을 덮었으며 절벽에서 몸을 던져 호랑이에게 먹였는데 나는 또한 무엇 하는 거냐!" 하고 마침내 눈이 펑펑 내리는 12월9일 밤 무릎을 넘는 눈 속에 합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해가 높이 떴을 때 달마와 이야기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혜가가 "제불의 법인法印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자

달마는 "제불의 法印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 당시 혜가는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웠으나 그러나 마음속에 불안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이시여 저의 마음이 아직 편안치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케 하여 주십시오."

"좋다. 그러하마. 너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 오너라."

"마음을 찾아도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不可得입니다."

"내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 마쳤다." 하는 데서 깨달았습니다.

혜가는 법을 위해서 그 추운 엄동설한에 불석신명不惜身命 했습니다.

신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안거 구순 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제라는 것은 그저 안거 석 달을 선방에서 적당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애써 정진해서 이번 철에 이 공부를 마쳐야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만나서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역 경계를 만났을 때 정진하기가 더 좋습니다. 결계지역을 벗어나지 말고, 말을 하는 것을 삼가고, 열심히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합시다.

성성적적하게 선정 · 지혜 닦자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



화두(話頭)가 성성(惺惺)하면
망상(妄想)은 저절로 적적(寂寂)하리니

오늘은 여름안거가 시작되는 결제일입니다. 출가 사문들이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의 도를 구하는 이 일은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 어떤 선객이 백장 회해(百丈 懷海: 749~814)선사를 찾아가서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如何是奇特事]?" 하고 물으니, 선사는 "홀로 우뚝 앉아있는 대웅봉이다.[獨坐大雄峰]" 하였다. 그러자 선객이 절을 하니, 선사가 때렸다.

회해선사가 머물던 산 이름이 백장산(百丈山)이며 그 주봉(主峰)이 대웅봉(大雄峰)이다. 투자 의청(投子 義淸, 1032~1088)선사가 이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 이야기에 대해 절창(絶唱)을 남겼다.

巍巍峭逈出雲宵 (외외초형출운소)
頂鎖氷寒勢外遙 (정쇄빙한세외요)
坐觀四望煙籠處 (좌관사망연롱처)
一帶靑山萬水朝 (일대청산만수조)

저 멀리 구름 밖에 우뚝 높이 솟아있는
찬 눈 덮인 정수리는 하늘까지 뻗었는데
사방을 둘러보니 안개 연기 서린 곳에
푸른 산은 만 개울의 근원을 품고 있네.

기특한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이란 백장산의 대웅봉 산꼭대기에 혼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대웅(大雄)처럼 홀로 우뚝 앉아 있는 대웅봉이라야 기특한 것입니다.

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름안거를 하는 우리 조계총림 대중들은 이 조계산 속에서 조용히 혼자 앉아 지내는 것이 기특한 것이 아닙니다. 백장산의 주봉인 대웅봉처럼 이 조계산에 임금제(帝) 자처럼 기상 높게 홀로 우뚝 솟아있는 조계봉(曹溪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홀로 앉은 비대면(非對面)의 기특한 안거가 될 것입니다.

獨坐曹溪峰 홀로 우뚝 앉아있는 조계봉이여!
白雲閒去來 흰 구름이 한가롭게 오고가는데
山鳥朝夕鳴 산새들은 아침저녁 지저귀면서
百花四季開 계절 따라 온갖 꽃이 피어나구나.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